

찬양 사역자의 영성과 섬김

** 찬양 사역의 본질**

핵심 질문: "우리는 누구를 위해 찬양하는가?"

- 찬양 사역은 음악적 퍼포먼스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
- 음악을 도구로 하지만 음악하는 행위는 아니다.
- 회중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목표

1.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

1) 겸손한 예배자 (요한복음 3:30 "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.")

- 사람 앞이 아닌, 하나님 앞에 선 자세
- 나의 재능과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,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

2) 순수한 예배자 (요한복음 4:23-24 "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")

- 예배 전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의 중요성
- 삶과 예배의 일치: 주중의 삶이 주일 예배에 반영됨

3) 헌신된 예배자 (로마서 12:1 "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")

- 연습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예배의 과정
- 목소리와 악기만으로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찬양하는 열정
-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세

2.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

1) 예배 순서를 맡은 자로서의 책임

-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
- 회중이 보기에 은혜로운 모습
- 예배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

2)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 (마가복음 10:45 "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옴")

- 목회자, 음향/영상팀과의 협력
- 회중을 섬기는 마음: 예배 후 피드백에 열린 자세

3) 영적 준비의 중요성

- 예배 전 개인 묵상과 기도 시간
- 연습시간, 리허설부터 예배의 시작
- 찬양 가사를 먼저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

3. 팀 안에서의 조화로운 소통과 관계

1) 하나님의 중요성 (시편 133:1 "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")

- 음악적 조화는 관계의 조화에서 시작
- 개인의 기량보다 팀의 하모니가 우선

2) 건강한 소통 (에베소서 4:29 "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")

- 비판보다는 격려, 지적보다는 제안의 언어 사용
- 갈등 발생 시 직접 대화, 혹은 리더십을 통해 해결

3) 서로를 세우는 관계 (갈라디아서 6:2 "서로 짐을 지라")

- 선후배, 파트 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
- 정기적인 팀 교제와 기도 모임의 중요성

4. 찬양 사역자로서 나아가야 할 훈련

1) 지속적인 영적 성장

-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깊이 있게 가꾸기
- 찬양 사역이 신앙의 전부가 아닌 일부임을 기억

2) 음악적/기술적 발전

-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기 위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
- 새로운 찬양과 기술적 발전을 익히는 자세

3) 차세대 양육

- 후배 봉사자들을 멘토링하고 격려하기
- 젊은 세대가 예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

4) 삶으로 드리는 예배

- 무대 위의 모습과 일상의 삶이 일치하는 진정성
- 찬양 사역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